

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

KIMCo NEWS LETTER

2022년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동향 및 전망

본 내용은 Evaluate Pharma에서 발간한 “WORLD PREVIEW 2022 Outlook to 2028...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요약했으며 전체 내용 및 자세한 정보는 위 보고서를 참고 바람

KEY POINTS

-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감소, 바이오텍의 IPO와 M&A 감소, 미국 시장에서의 약가 협상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
- 그러나, 민간투자와 M&A의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글로벌 R&D 및 의약품 매출은 지속 성장할 전망
-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를 앞둔 대형 제약사는 M&A를 통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에 관심

2022년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오텍의 IPO와 M&A의 감소, 미국 시장에서의 약가 협상 등으로 다소 암울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Evaluate Pharma는 글로벌 의약품 매출이 '2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, 특히, '28년에는 최고 매출 의약품을 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등 혁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* '28년 처방의약품 매출 순위는 Keytruda, Opdivo, Dupixent, Darzalex, Ozempic, Biktarvy, Skyrizi 순

“전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 상승세 지속”

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품 처방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다. 코로나19의 영향으로 '20년에서 '21년 사이 처방의약품 매출은 18% 급증하였으며, 백신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이 33%에서 38%로 확대되었다. 향후 백신, 항바이러스제, 항체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수요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, 전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은 매년 6.1% 지속적으로 성장하여, '28년에는 \$ 1,612 B (2.1조 원)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,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은 '21년 38%에서 '28년 41%로 증가할 전망이다.

그림1. 2014년-2028년 전 세계 처방의약품 총매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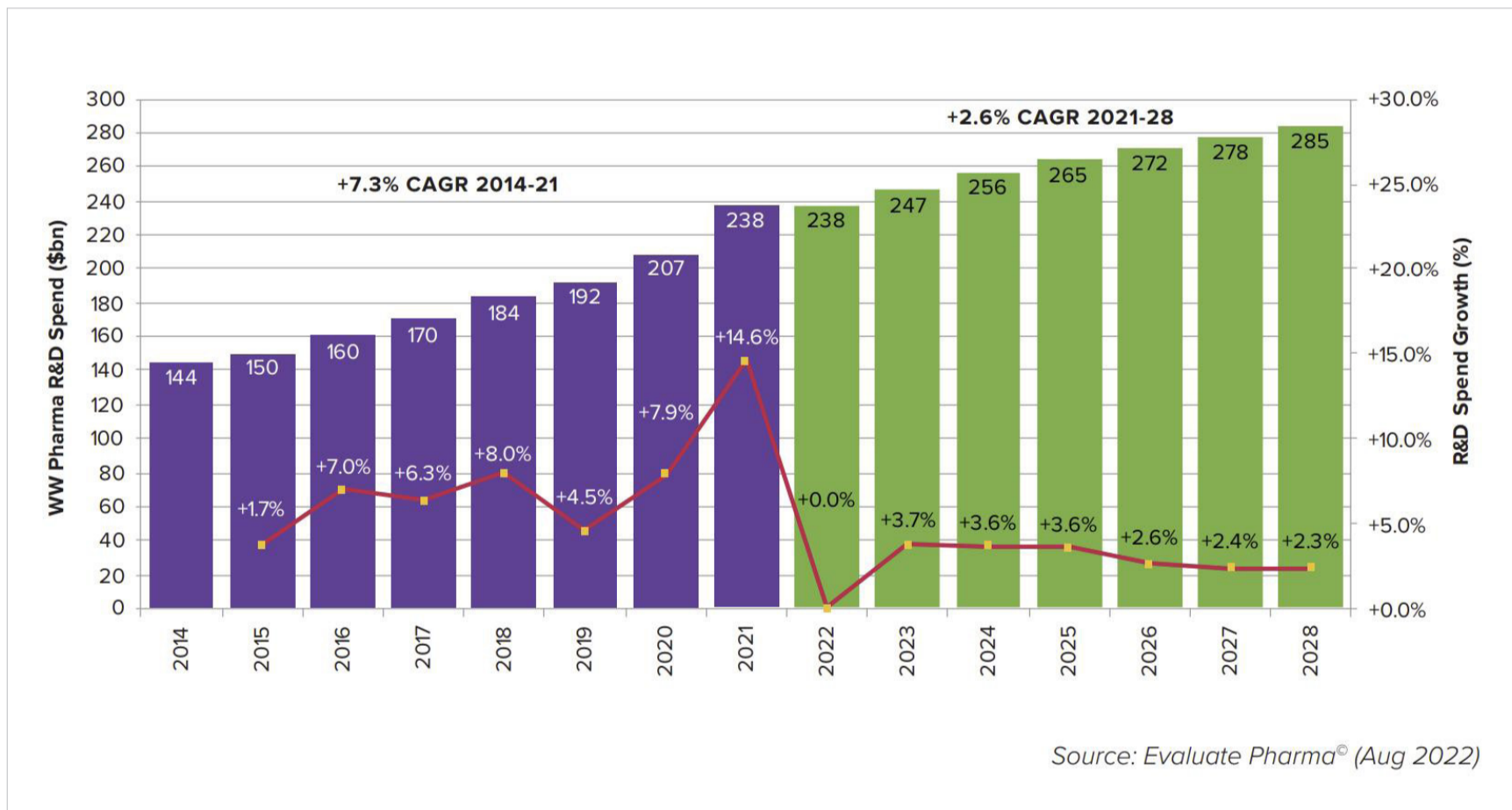


(출처 : Evaluate Pharma)

“전 세계 제약 R&D 지출 완만한 성장”

전 세계 제약 R&D 지출의 연간 성장률은 '28년까지 한 자릿수 규모로 감소하여, 향후 몇 년 동안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특히, 규모가 작은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몇 년간 현금 보존에 집중하면서 R&D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. 그러나, '14년~'21년의 절반 수준인 R&D 지출이 혁신의 감소를 나타내지만은 않는다. 디지털 기술 및 오픈스 도구, in silico 시험과 장기칩 및 오가노이드 등의 출현, 임상시험 디지털화에 따라 신약 R&D가 가속화되고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혁신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.

그림2. 2014년-2028년 전 세계 제약 R&D 총지출



(출처 : Evaluate Pharma)

“투자시장 위축과 바이오텍의 기업가치 하락”

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기업가치가 급상승하였던 Novavax의 주가가 90% 이상 하락하고, Moderna의 주가가 70% 가까이 떨어지는 시장 상황에서 '22년 상반기에 바이오텍 IPO는 단 1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. 투자은행 Torrey에 따르면, Follow-on 투자도 급감하였다.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Down-round 투자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수의 바이오텍이 기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취소하였다.

반면, 바이오텍의 기업가치 하락은 제약사에게는 M&A의 기회가 되었다. 특히,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를 앞둔 다수의 대형 제약사가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하여 M&A에 적극적으로 나섰다. Pfizer는 Global Blood Therapeutics를 \$ 5.4 B (8월), BMS는 Turning Point Therapeutics를 \$ 4 B (6월), GSK는 Affinivax를 \$ 2.1 B (5월), Sierra Oncology를 \$ 2 B (5월)에 인수하였다.

“희귀의약품, 그리고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에 대한 수요 여전”

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해 대부분 파이프라인이 초기 단계에 있는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기업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가치에 대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시기였다. 최근에 UniQure의 헌팅턴치료제 AMT-130의 부작용 발생과 Novartis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Zolgensma의 사망 발생 등 안전성 이슈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.

그러나, 제약사 입장에서 복잡한 승인 과정을 피할 수 있고,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희귀의약품 영역은 여전히 주요 관심 영역이며,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가 결국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지는 만큼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

글로벌 주요 전망

- 2028년 처방의약품 매출 톱(top) 기업: 1위 Roche, 2위 AbbVie, 3위 Johnson & Johnson
- 2021년과 비교 Roche가 4단계 상승하면서 Abbvie를 넘어 1위 차지, Pfizer, Novartis, BMS 등 순위 하락
- 2028년 판매액 톱(top) 의약품: 1위 Keytruda, 2위 Opdivo, 3위 Dupixent
- AbbVie의 건선치료제 Skyrizi와 Vertex Pharmaceuticals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Trikafta가 2028년 10위권에 진입
- NPV 기준 톱(top) R&D 프로젝트: 1위 Gantenerumab (알츠하이머치료제, Roche + MorphoSys), 2위 Intravitreal Pegcetacoplan (황반변성 치료제, Apellis Pharmaceutical), 3위 Adagrasib (폐암 치료제, Mirati Therapeutics + Zai Lab)
- Biogen의 Aduhelm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2개의 알츠하이머 프로젝트가 1위와 6위(KarXT)를 차지, SRP-9001(Micro-dystrophin gene therapy), mRNA-1647(mRNA vaccine) 등 유전자 치료 제도 상위권에 포진